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하고 풍성한 가운데는 쉽게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아무 것도 없는 고난 가운데 감사하며 살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감사는 비록 가진 것이 없을 지라도, 즉 아무 것도 없는 가운데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은혜만으로 기뻐하는 감사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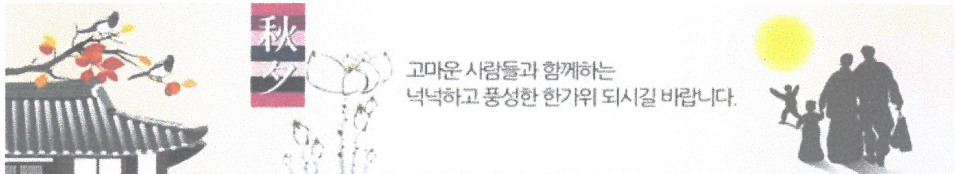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온전한 감사는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18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두려움과 무서움이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신앙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란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벌, 곧 육체의 죽음과 지옥의 고통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알고 믿는 자에게 천국의 영생 복락을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현재 우리의 눈을 들어 나의 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온전히 감사하는 가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온전한 감사는 구원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풍성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인생에 환난이 닥쳐와도, 비록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을 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며 온전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 송 ..... 384 장 ..... 다 같이**

1.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하리라
2.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3.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기도문 ..... 다 같이**



# 2021년 추석명절 가정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산교회**  
담임목사 **홍순용**



# 추석 감사예배

한가위예배를 통해 온 가족들과 일가친척이 모여서 항상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족 구성원들이 화목과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순서는 가족들이 골고루 맡아서 하면 좋습니다.)

**개 회** ..... **말 은 이**  
추석 명절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 **다 같이**

**찬 송** ..... **429 장** ..... **다 같이**

1.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2. 세상 모든 근심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네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렵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3.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기 도** ..... **말 은 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모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해도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손길로 위로받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땅의 풍성함을 기억하며, 다시금 하늘의 충만한 복을 사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봉독** ..... **하박국 3:16~18** ..... **말 은 이**

16.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17.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 씬** ..... **“ 온전한 감사 ”** ..... **말 은 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감사가 무엇인지?’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가 멸망당하는 공포와 두려운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참 감사가 무엇인가를 역력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통해 온전한 감사가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환난 가운데 드리는 감사입니다.**

본문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환난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으며, 내 몸의 처소가 떨린다고 고백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환란을 눈앞에 두고도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환란 가운데서 드리는 감사, 찬양, 이것이 온전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없음에도 드리는 감사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먹을 것도, 양식도, 사업장도 모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인생으로 비유하자면 철저히 부서진 인생을 의미합니다. 가정으로 표현한다면 풍비박산된 가정이라고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